

광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취업 장애인’ 확 줄었네

2019년 63명으로 시작 올해 15명에 그쳐...5년간 17곳 139명 취업 지원예산 감소·선정업체 변경 등 이유...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되야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광주지역 장애인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총 63명이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15명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9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2021년 17명, 지난해 15명까지 줄어 올해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광주지역에 있는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5곳의 업체를 선정해 해당 업체에서 장애인에 맞는 업무를 고려해 적재적소에 취업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광주시가 직접 추진했고 지난해부터는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 만 18세 이상 등록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정도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실제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새 17곳의 업체에서 139명의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해왔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15명의 장애인은 선정된 ▲가치여울협동조합(5명) ▲시온장애인보호작업장(7명) ▲디딤중증장애인사업단(2명) ▲푸른하늘장애인보호작업장(3명) 등 4개 기관에 각각 취업해 제복 등 단체복 납품,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 청소, 점자안내표 제작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취업한 장애인들의 인건비, 기타 경비 등 모든 비용은 전액 광주시 시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예산이 감소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면서 이 사업으로 일자리를 얻는 장애인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사업예산이 1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장애인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지만 지원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연간 계획으로 매년

선정 업체가 달라졌고 해당업체의 기간연장조차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계약이 끝나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일터를 잃는 장애인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들이 잘 다니던 업체가 다음해에 사업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한 순간에 직장을 잃는 일이 빈번했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가 감소한 원인 중 하나다”고 전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광주시는 올해부터 한 업체가 3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연장시 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했지만 장애인 고용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 담당자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초창기에는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근무시간을 조절하다 보니 짧은 시간 근무하는 장애인이 많은 경우 고용수가 늘어나고, 최근에는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다 보니 장애인 고용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발달장애인 안녕!’ 제3회 ‘발달장애인 안녕!’ 영화제가 지난 20일 광주시 광산구 수원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영화제에서는 광주지역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이 제작에 참여한 10편의 작품이 선보여졌다. <광주시 광산구 제공>

광주지역 장애인들 소식·소통 공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누리빛’ 앱 출시...커피 쿠폰 이벤트

광주지역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이 출시됐다.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센터)는 ‘누리빛’ 앱을 출시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누리빛’ 앱은 센터가 운영하는 장애인 종합정

보 시스템 누리빛 사이트를 편의성을 위해 앱으로 개편한 것으로, 앱을 통해 광주에서 개최되는 장애계 행사 소식을 누구나 게시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센터는 ‘누리빛’ 앱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당첨자 200명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참가는 ‘누리빛’ 앱을 설치 후 본인인증만 하면 자동으로 된다. 오는 31일까지 응모가 가능하며 당첨자는 11월 2일 누리빛 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누리빛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현섭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장은 “누리빛이 광주 장애계의 소식 소통공간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계 정보 공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국립공원공단과 함께해요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지리산 풍경 즐겨요”

‘노고단 탐방 체험과정’ 운영...숙박형·당일형 구성



국립공원공단은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지리산 노고단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노고단 탐방 체험과정’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공단은 최근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를 새롭게 개장하면서 몸이 불편해 탐방이 어려운 장애인 가족도 함께 숙박할 수 있도록 49.5㎡(15평) 규모의 장애인 전용 공간을 조성했다.

올해 11월 시범운영되는 ‘노고단 탐방 체험과정’은 숙박형(1박 2일)과 당일형으로 구성됐다. 숙박형은 11월 8일, 15일 총 2회에 걸쳐 운영된다. 회차별로 휠체어 장애인 1~2명과 가

족을 포함한 4명이 참여할 수 있다. 당일형은 11월 10일, 11월 17일 운영되며 각각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및 가족은 국립공원 차량을 타고 성삼재 주차장에서 노고단 대피소로 이동해 노고단 생태 관찰 및 산책, 낙조 감상, 별자리 관찰, 일출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당일형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우리산 지키는 친환경 탐방 실천해요”

11월19일까지 가을 탐방객 ‘포레스트’ 캠페인

가을철 산행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탐방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국립공원공단은 다음달 19일까지 가을 성수기 탐방객 대상 친환경 탐방 실천을 촉진하는 ‘포레스트(Fores:T)’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투썸플레이스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 캠페인은 14세 이상 전국 21개 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다.

국립공원의 산림 또는 바다에 방문해 1회용이 아닌 다회용기 사용, 플로깅(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의 장면을 촬영해 국립공원 이벤트 페이지에 게시하면 2500명에게 추첨을 통해 투썸플레이스레드푸드 텀블러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국립공원 현장에 게시된 포스터와 현수막 QR 코드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국립공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